

브라질, OPEC 회원국 가입 추진

5-6년 상이 원유 순수출국 전환 ... 회원국 이해관계 옹호해야

브라질이 최근 대규모 매장량을 보유한 유전을 발견하면서 석유수출국기구(OPEC)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OPEC이 가입조건으로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옹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달라 엘-바드리 OPEC 사무총장은 사우디 리야드에서 “브라질 정부로부터 아직 공식적인 가입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브라질이 OPEC에 가입하려면 석유 순수출국이어야 한다는 점 외에도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옹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브라질 국영 에너지기업 Petrobras는 11월 초 상파울루 산토스만 인근 해역에서 50억~80억배럴 추정 매장량을 가진 대규모 유전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11월 8-10일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열린 제17차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 기간에 “새로운 유전 발견으로 브라질의 석유 매장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OPEC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룰라 대통령은 “OPEC 가입 추진 시기는 브라질이 순수하게 석유 수출국이 되는 날”이라고 말해 앞으로 5-6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OPEC 가입을 실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 “브라질은 OPEC 가입을 통해 국제유가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해 경우에 따라서는 OPEC 기존 회원국과 다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룰라 대통령 발언에 따라 엘-바드리 총장이 회원국의 이해관계 옹호를 가입 조건으로 강조한 것은 브라질이 OPEC에 가입한 뒤 다른 회원국들의 입장과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세계 원유 수요의 40% 이상을 공급하는 OPEC은 11월 17-18일 리야드에서 회원국 정상회의를 갖고 에콰도르의 회원국 자격 회복을 결정할 예정이다.

에콰도르는 OPEC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하지는 않았으나 1992년부터 각출금 납부를 중단함에 따라 정회원국 자격이 정지됐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1/15>